

미래를 기억하는 일



김연수 『이토록 평범한 미래』

어릴 때 내가 상상한 미래는 지구 멸망이나 대지진,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나 제3차 세계대전 같은 끔찍한 것 아니면 우주여행과 자기부상열차, 인공지능 등의 낙관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우리가 계속 지는 한이 있더라도 선택해야만 하는 건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미래가 다가올 확률은 100퍼센트에 수렴한다는 것을.

— 『이토록 평범한 미래』

WRITER



안보윤 소설가
『어떤 진실』 제68회
현대문학상 수상

‘미래’라는 단어와 마주할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미래를 설명하기 위해 과거를 뒤적이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지만, 내게는 늘 그 기억이 미래보다 선명하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한 친구가 내게 자신의 지인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순식간에 약속 일자와 장소를 잡고는 정작 그에 대해서는 별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책을 많이 읽는다거나 신중하고 배려심 있다는 보편적인 말도 몇 마디 덧붙였을 것이다. 그는 검은 셔츠에 목직한 사각 가방을 어깨에 걸머메고 약속장소에 나타났다. 난감한 얼굴을 보니 그 역시 나에 대해 ‘좋은 사람’ 운운만 듣고 나온 모양이었다. 그렇게 좋은 사람 둘이 서로에게 뭘 궁금해 해야 할지 몰라 차가운 술만 훌쩍이던 때의 일이었다. 그가 문득 내게 물었다. “장래희망이 뭐예요?” 나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했다. 그가 가볍게 고개를 가로젓더니 다시 물었다. “더 크면, 미래에 뭐가 되고 싶나요?”

좋은 사람이라더니. 순간 내가 느낀 것은 친구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장래희망이나 미래 같은 건 책가방이 어울리는 나이에나 유효한 질문 아닌가. 당시 나는 소설가로 등단해 몇 권의 책을 낸 상태였다. 어린 시절 희망했던 것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미 미래에 당도해 있던 때였다. 그러나 무언가를 이뤘다고 답하기엔 많은 것이 미진했다. 작가는 되었지만 내 책들은 잘 팔리지 않았고, 시간강사 일로 돈을 벌었으나 임시직에 불과했다. 나는 그의 질문이 나의 현재를 부정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요컨대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군. 나는 몸을 한껏 뒤로 물린 채 팔짱을 꼈다. “그쪽 장래희망은 뭔데요?” 나는 아마 그렇게 되물었을 것이다. 그 쪽은 뭐, 돌연 고시 공부를 해서 판사라도 될 셈인가? 의사? 스타트업 대표? 뭐 얼마나 대단한 꿈이 있으시길래? 속으로 끝없이 투덜거리면서 말이다.

그의 대답은 물론 내 예상과 달랐다. 그가 말한 것은 미래에 있을 자신의 일상에 가까웠으니까.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만큼 베풀고 원하는 만큼 책을 읽는 일상. 그가 꿈꾸는 미래는 시시하다고 느껴질 만큼 평범하고 평온했다. 역시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군. 나는 그렇게 확신했다. 미래라면 아무래도 포부나 열정 같은 게 흘러넘쳐야 하는 것 아닌가. 화려한 꽃다발을 기대했다가 몸에는 좋지만 보기엔 후줄근한, 삶은 시금치 같은 걸 선물 받은 기분이었다.

김연수 소설집 『이토록 평범한 미래』를 오래 곱씹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

였다. ‘이토록 찬란한 미래’라면 모를까 평범하다니, 미래를 이렇게 홀대해도 좋은 걸까 싶었던 것이다.

표제작 『이토록 평범한 미래』에는 한가로이 맥주를 나눠마시며 담소하는 중년 부부가 등장한다. 호쾌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것에 비해 이들이 나누는 과거사는 사뭇 무겁다. 준은 이십 년 전 여름, 지민과 함께 광화문을 걸었던 날을 회상하고 있다. 대학 2학년에 불과한 이들은 이제 막 동반자살을 결심한 참이다. 지민은 오래전 자살한 엄마와 그녀를 이해해주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원망으로, 준은 지민에 대한 사랑으로 미래와의 단절을 선언한다. 그러나 이들의 행보는 어쩌서인지 누군가를 찾아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형태다.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준의 삼촌을 만나서는 지민의 엄마가 과거에 썼던 소설에 대해 묻는다. 신의 영매를 자칭하는 정체불명의 여성에게는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 묻는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확인하지 못한 과거와 확신할 수 없는 미래에 멈춰 있는 셈이다.

이들의 위험한 결심에 대해 알게 된 준의 삼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라고 답한다. 지민의 엄마가 고통스러운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학생이 된 딸의 모습을 떠올렸다면 자살과 다른 결론을 내렸을 거라면서 말이다. 엄마의 죽음이라는 과거만을 기억한다면 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미래를 기억한다면 두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용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기억할 때 가능해집니다.” 삼촌의 말에 두 사람은 거리로 나와 고요히 손을 잡고 걷는다. 서로에게 몸을 붙이고 거리를 걷는 순간 이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그 증거로 중년이 된 이들은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한낱 담소의 형태로 흘려버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미래를 기억하는 일. 여기서 미래는 환상적이지도 혁명적이지도 않다. 보상이 축포처럼 쏟아지는 일도, 재앙이 용암처럼 들끓는 일도 없다. 어두운 밤때와 마주치더라도 계속해 살아내는 일, 그리하여 얻어낸 소박한 성취를 충분히 누리려는 일의 중요성을 이제는 알 것도 같다. 열심히 살아낸 오늘에 대한 보상은 꼭 오늘날만큼의 깊이와 무게를 지닌 하루를 더해주는 형태로 주어진다. 사실 역시 말이다. 그렇게 삶은 이토록 평범한 미래와 함께 완성되어 간다.

• 외부 필진의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